

작년 수해 문화재 복구 진척없다

경북지역 33곳중 15곳 공정 30%... 올 장마 무방비

6월 24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어 가운데 지난해 태풍 투사의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문화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북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투사 등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지역 지정 문화재 33개소중 18개소는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거나 8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30% 이하의 낮은 복구 공진율을 보이고 있어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시 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직지사 3층석탑 지난달에야 설계 끝나

청송 수정사 대웅전 15cm가량 '기우뚱'

드러나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3층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 나간 보물 제1186호 김천 직지사 청풍로 앞 삼층석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늦어지면서 6월 30일야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축이 붕괴된 유형문화재 318호 경주시 의동읍 감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등 상당수의 문화재가 장마 등 풍수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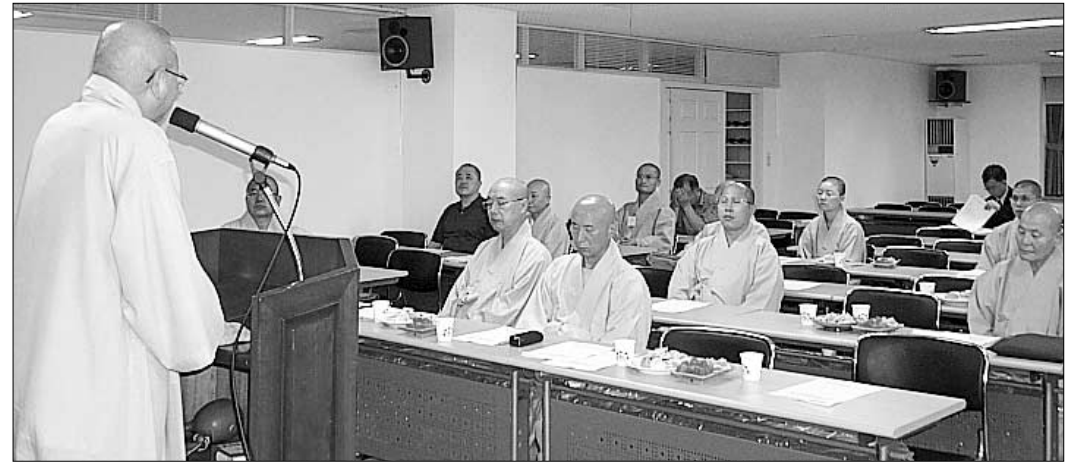
청송 수정사 주지 선주스님은 "대웅전(문화재자료 73호)이 약 15cm 가량 기울었고, 산신각도 비가 세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시에서는 우장막 설치만으로 그치고 있다"며 "한번 소실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문화재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해 시급히 보수

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복구가 지연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 2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관계 전문가들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석축 등의 공법에서도 풍수해에 약한 일자형 쌓기를 지양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동국대 석림회 대구경북지부 창립식이 6월 27일 대구 불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석림동문회 대구경북지부 출범

창립 법회...초대회장 재원 스님

동국대 조계종 중비장학생 출신 스님들 모임인 석림동문회가 6월 27일 대구·경북지부를 창립했다.

석림동문회가 서울 중앙회 이외에 지역에 지부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창립법회는 석림동문

회 회장 법타스님, 대구경북총경 승실장 원각스님, 정각원장 법해스님 등 2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불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석림동문회 대구경북지부 초대회장에 대구불교교육대학 학장 재원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인터넷뉴스 박원규 기자

17일 달빛음악회

지울 스님, 내원사 주자창

매월 한차례의 산행을 갖고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지울 스님이 달빛 음악회를 연다.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회 지울 스님은 양산을 사랑하는 사람모임과 12일 저녁 8시 내원사 주자창에서 내원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보름

달빛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펼친다. 특히 음악회에 앞서 은은한 달빛 아래 숲을 거니는 달빛 숲 체험 시간과 반딧불이가 많은 계곡의 특성을 살려 반딧불이 불빛을 따라 숲길 걷기도 함께 진행한다.

지울스님은 "경부고속철 기존 노선의 문제점은 아름다운 자연과 호흡하면 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55)374-6466

천미희 기자

대구 불교방송, 포항·안동에 중계소

동해안·경북북부 가청권에

대구불교방송이 포항과 안동 중계소를 설립했다.

대구불교방송은 지난 6월 28일 정보통신부와 경북통신청으로부터 포항과 안동 중계소 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립추진중인 포항중계소와, 안동중계소는 각각 주파수 FM 105.5MHz와 97.7MHz로 오는 10월

시범방송을 거쳐 11월 중순 정식 개국할 예정이다.

이로서 대구불교방송은 그동안 난징지역이었던 포항, 영덕,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과 안동, 영주, 의성, 문경, 구미 등 경북 북부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박원규 기자

청담인육정진 수련대회

청담사상연, 참가자 모집

진주산악대 부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김기원)는 11일부터 3일간 고성군 육천사에서 '제 1회 청담 인육정진 수련대회'를 연다.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청담종사 선양사업에 관한 토론, 참선, 선기공, 발우공양, 산행, 법문, 찬불가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심을 다진다. 이 밖에도 천수경, 금강경 독경을 비롯 성보문화재 학습, 불교 교화를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된다. 문의: (055) 751-3699, 672-0100. 천미희 기자



장맛비타면 나투신 마애삼존불상. 숨어 있던 통일신라 마애불이 새로 발견됐다.

높이 1.4 너비 0.8m 크기
광배와 연화대 양각돼

영주시청은 6월 29일 보물 221호인 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바위가 장맛비에 무너지면서 바위 안쪽에 조성돼 있던 마애불(사지)이 발견돼 문화재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높이가 1.9m 폭 1.2m 두께 1m의 바위에 돌출해 나오도록 조성된 마애불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여래좌상으로 눈과 코 부분이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한 형태다.

문화재청 김창근 문화재전문위원은 "8세기 통일신라 작품으로, 보물급 지정 가치가 있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통일신라 말 조성 추정 금동여래좌상 발견

제주도 애월읍 월영사(주지 정우)에서 통일신라 말(8세기말~9세기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사지)이 발견됐다.

높이 115cm의 청동으로 제작된 불상은 우견편단(右肩偏袒,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게 가사를 입은 모습)에 얇은 천의(天衣)를 걸쳤으며 목

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돼 있다. 상호는 사자형으로 원만하고 턱이 좁은 편이다. 긴 눈코리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얇은 입술이 인상적이다. 목과 오른팔, 왼팔에 땀줄한 흔적이 있으나 보존 형태는 완벽한 편이다.

문화재위원 정영호 교수(단국대 박물관장)는 "왼쪽 가슴의 삼각형 주름 등 양식이나 상호가 887년 조성된 불국사 금동보살좌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불상은 15년 전 제일동포가 절에 기증했다. 권형진 기자

거창군 불교신도회 12월 창립

준비위, '야단법석' 공연... 사실상 활동

거창에 불교신도회가 창립된다.

거창군불교신도회는 준비위원회(위원장 윤구, 아립신문 사장)를 꾸리고 거창 불심 모으기에 나섰다. 거창군불교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8일 거창군 문화회관에서 타악무지컬 '야단법석' 초청 공연을 갖고 창립을 위한 인적,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거창군 문화회관 7백여 명이 매진될 정도로 군민들과 불자들의 호응을 얻은 '야단법석' 공연으

로 거창군 불교신도회의 활동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거창지역 13개 사찰의 신도회와 거창공무원불자회, 심우사 불교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거창군불교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12월 공식 창립을 앞두고 매월 정례 모임을 통해 거창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실천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영 연화사는 6월 27일 신내암자인 보덕암에 해수관을 보살상을 세웠다.

해수관음보살상 점안

연화사 보덕암에 조성

경남 통영시 연화도의 연화사(주지 동용 스님)는 6월 27일 보덕암에 10m 높이의 조성한 해수관음보살

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약 20년 전 시작된 도서포교의 원력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며 "불사중인 보덕암이 완공되면 중국 보타나카산 못지 않는 기도수행처로 도서포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인 입장 덩어리를 녹이며! 주말 수행 체험 이야기

- ◆ **중단전차크라** (가슴명치) 막힌 지옥 덩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신비로운 도인체조를 단 한번으로 배우고!!!
- ◆ **독경 명불** 의 동승시 기승과 어깨를 들먹거리고 자제 불광으로 거꾸로 호호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른 자세와 호흡법, 운율법을 배워 진정한 수행과 행복이 시작된다.
- ◆ **자등단전호흡** 은 광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수행으로, 수행하려면 누구나 배워야할 단전호흡이 일체 무리없이 저절로 되어 일할때, 설때나, 잠잘때 그대로 적용되어 생활이 절로 됩니다.
- ◆ **와 선** 단 20분의 투자로 세상 살맛이 난다. 즉석에서 완전한 이완과 에너지 증진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며 초종초종 빛나는 두눈이 화선의 진가를 말해준다.
- ◆ **행 선** 복잡한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며, 깃들린 어깨가 가벼워 진다.
- ◆ **입장소멸진행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업장을 지우고 부처님께 바친다.
- ◆ **기차게 절하는법** 습하지 않고, 험박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 지지 않는 호흡에 맞추어 절하는 법을 배워 완전한 수행공간이 된다.
- ◆ 소리산의 정성(출세봉)에 올라 출세를 다짐하며!!!!
- ◆ 수련일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12시, 12시취침~ 일요일: 아침 5~10시(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3333배 절이정진 합니다)
- ◆ 준비물: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절을 기차게 절하는법 읽고 오세요.

백만불자 108배 만일절사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http://cafe.daum.net/sorisan
○ 오시날: 상봉터미널 - 청평담 - 설악면 - 모곡종정 하차 전차호
동서울 상봉터미널 - 양평 - 용문 - 단원역 하차 전차호
* 자카용: 양평에서 흥천방향 - 용문터미널 - 단원 - 대명비탈리파크 입구에서 청평 방면으로 6km 지점 - 석산리유수소 앞 - 소양산장 - 법왕정사

당 노

다운 밸런스

- 당노,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는 시대의 최첨단 영양학의 정수인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노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한 혈당치가 다른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천천히 떨어지도록 혈당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노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노병 전에 걸린 당뇨병을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디진 영양밸런스를 조장해 준다.

▶ 다운 밸런스의 당노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노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대양, 비만증, 무용,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부름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알, 관절염, 고혈압

조원케이칼라이프 Co.
(주)만도제약(주)수시인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자 성광수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내유일의 정부출연 바이오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인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오가피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20여년을 하루같이 지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가피를 키운 성광수씨의 정성! 믿을 수 있는 수신토종오가피의 신념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전 온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년전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했습니다. 월드컵 4강진화를 이룬후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오가피는 오직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은행사를 마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2201-3333